현장과 시각

'윈-윈' 결단 필요할 때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지난 2006년 11월 한·미 FTA 저지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 광주지법이 최근 내린 화해권고결정의 수용 시한(9일)이 임박하면서 소송 당자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시위 주도단체와 참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광주시에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결정은 내용면에서도 화제가 됐다. 집회를 주도한 간부 회원들과 참가자 40명에게 내년 말까지 토요일·공휴일에 광주천 자연정화활동(10회)과 장애인시설 봉사활동(50회)을 하고, 광주시청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했다. 참석 인원이 미달할 경우 1인당 5만원씩 시에 지급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대신 광주시는 2억2천만원의 피해시설물 복구비용과 부상당한 시청 직원들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9일까지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재판부의 결정은 당시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공공기관 청사까지 파괴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만큼 그 빚을 봉사활동으로 갚으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광주시가 입은 피해가 크기는 하지만 그동안 19명이 구속 기소됐고, 1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계속되는 민·형사 소송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겪은 고통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농민·노동자 등 소송 당사자 43명이 광주시의 가압류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려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 "시 청사가 파손되고 일부 공무원이 부상하는 등의 사태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남은 것은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다. 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들불처럼 번진 촛불집회 이후 폭력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정부 및 공안당국의 태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 듯하다. 대형 이슈가 터질때면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청사가 시위의 타겟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한·미FTA시위를 둘러싸고 2년 가까이 되풀이돼온 시와 시민사회간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 시민화합을 위한 '윈-윈(win-win)'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who@kwangju.co.kr

당정, 내달중 北 식량지원 검토

前정부 약속 옥수수 5만t과 별도로 직접 지원 할 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달 중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시기는 추석이 지난 뒤 10월초 북한의 쌀 작황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앞으로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식량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식량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과 접촉을 넓히기 위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북한이 1년간 필요한 식량이 500만여t이나 지난해 생산량이 403만t에 그치는 등 해마다 100만t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50만t의 식량 지원과 함께 WFP로부터 15개월간 5억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받기로 한 데다 올해 쌀 수확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선뜻 식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회의에서 통일부는 WFP가 우리 정부에 2천만~6천만 달러 수준의 식량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WFP를 통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해 행정비용이 15~20% 가량 들어 직접 지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관형식 지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식량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내기로 약속한 옥수수 5만t과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합뉴스

美 사상최대 규모 구제금융 초읽기

"양대 모기지 업체 공적자금 250억달러 투입"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주택시장 위기의 주범인 양대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인수나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내용을 담은 계획을 빠르면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를 정상화하는데 공적자금이 250억달러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돼 미 역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전날 헨리 폴슨 재무 장관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에서 재무부에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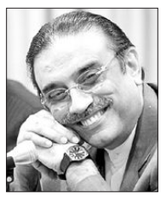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주택대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달러를 보유하거나 보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프랭크 위원장은 그러나 재무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두 기업은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대출을 사들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대성 폭풍 '해나'가 아이티의 고나이브를 강타한 뒤 한 주민이 6일 슈트케이스를 짊어진 채 홍수진 거리에서 자전거를 밀고 지나가고 있다. '해나'로 아이티에서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대통령 자르다리 당선

부토 前총리 남편…선거인단 702표중 481표 획득



고(故)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53·사진)가 파키스탄의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파키스탄 연방 상·하원과 4개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결과, 자르다리가 전체 702표 가운데 481표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후보인 사에드 우즈 자만 시디키 전 대법원장(153표), 제3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Q)의 무샤히드 후세인 시에드 상원의원(44표)을 큰 표차로 누른 압승이었다.

이로써 자르다리는 지난 달 사임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특히 집권 PPP의 공동의장이자 파키스탄 정계의 최고 실력자 자리에 오른 그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구축한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손에 넣으며 파키스탄의 6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됐다.

자르다리는 "나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 98%의 대표가 나를 택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의회를 존중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집트 산사태 수백명 사망설

이집트 카이로에서 6일 산사태로 무너져내린 바위 등이 산기슭의 빈민촌 가옥들을 덮쳐 수백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보도했다.

사고가 난 카이로 동부 외곽의 만시예트 나세르 마을에는 가옥 50여 채가 바위와 자갈, 흙으로 매몰된 상태여서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록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50분(현지 시간)께 바위산인 무카땀의 한쪽 절벽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절벽에서 떨어져 나간 거대한 바위와 자갈이 언덕 아래에 있는 나세르 마을로 쏟아져 내려갔다.

무게 50~100t짜리 대형 바위들은 가옥 50여 채를 한꺼번에 덮쳤고, 이슬람권의 단식월인 라마단을 맞아 새벽녘에 잠자리에 든 주민들 상당수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됐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바위와 흙더미 밑에 매몰된 사람 수가 워낙 많아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 사망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매몰자 수를 수십에서 수백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알-자지라 방송은 그 수가 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헝가리서 교통사고 한국인 4명 숨져

승용차 타고가다 열차와 충돌

헝가리 북서부 지역에서 6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인 5명을 태운 승용차가 열차와 충돌,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는 국내 대기업 주재원인 이모(47)씨 부부와 딸(12), 같은 회사의 이모(45)씨 부부 등 5명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죄르 인근 뢰뵈 마을의 철도 교차로에서 솜바트헤이에서 쇼프론으로 가던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딸은 중상을 입고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말을 맞아 헝가리 쇼프론 지역을 여행하던 이씨 차량이 시속 40㎞로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열대성 폭풍 '해나' 강타

아이티 500명 이상 사망

아이티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해나로 이미 5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수가 시시각각 늘고 있다고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6일 밝혔다.

앞서 현지 경찰은 물이 빠지면서 북부 고나이브에서만 495명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13명이 실종상태라고 말했다. 아이티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고나이브는 2004년에는 허리케인 잔느로 3천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던 곳이다. /연합뉴스

대표:성 봉 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5대 총원우회장
·(주) 시너법인 광주아카데미 공동대표
·전 경실련 재정위원장
·전 서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55-B1지구 전남라이온스클럽 33대회장
·현 355-B1지구 지대위원장

해령법률경매

T:062)225-2665 H.P:011-605-7777 위치:법원정문앞

상가,주택,상가,건물근린사설 (최고의유통전문가추천물건대량확보)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동구	황금동	학생회관부근	588/1969	21억1천	7억8천
	충장로	광주우체국인근	197/847	14억7천7백	8억2천7백
서구	양동	실내체육관부근	254/68	2억4천	8억8천
	금호동	화제초인근	215/498	4억3천	2억4천
	화정동	현대@인근	580/2538	14억2천	7억8천
	양동	우주@인근	105/198	1억4천8백	6천6백
	유촌동	극락초인근	201/441	3억8백	1억7천3백
남구	월산동	월산로터리	526/672	8억8천	3억
	진월동	동성중부근	281651	6억5천	1억6천
	진월동	아남@인근	683/542	5억4천	2억4천
	월산동	무등시장내	100/132	2억2천	1억2천
	주월동	주월스카이인근	158/209	1억3천	7천3백
	주월동	서남민신인근	158/209	1억3천	7천3백
북구	중흥동	중흥초인근	235/536	3억2천	2억2천
	일곡동	일곡초인근	413/850	9억7천	6억8천
	문흥동	현대@인근	190/328	2억2천	1억2천2백
	두암동	기산로일@도로	204/566	5억5백	3억5천
	중흥동	구시청사거리인근	309/126	4억7천6백	2억6천6백
	신안동	신안동사무소인근	201/295	2억1천8백	1억2천2백
	본촌동	본촌우체국인근	89/149	7천5백	3천3백
광산구	송정동	송정중인근	407/985	12억4천	5억5천
	우산동	하남시영@인근	637/1697	16억8천	7억4천
나주	송월동	실내체육관부근	210/615	4억8천	1억5천
	대호동	동산대인근	524/319	3억4천	1억5천
담양	금성면	2차산국도변	1282/518	1억3천	6천2백
장성	황룡면	해주@인근	803/646	3억8천	2억2천
	삼계면	사창초인근	909/558	3억2천	1억5천
	북하면	백양사갯집	1448/489	2억8천	1억8천
화순	화순읍	경찰서인근	92/89	1억2천	8천3백
	삼천리	타미널인근	2589/519	7억6천	2억7천

월 롱 (다 가 구)빌라 (보증금액으로내집마련좋은기회)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서구	유촌동		201/441	3억천	2억2천
남구	서동	대성초인근	188/321	2억7천	1억8천
동구	계림동	광고인근	218/396	3억8천	2억7천
북구	두암동	무등파크2인근	187/346	2억4천	1억7천
	우산동	서방사거리	292/382	3억4천	2억4천
	일곡동	일곡초인근	341/491	3억5천	2억
광산구	신가동	신가저수지	186/307	2억8천	1억5천

주 택 (황상내집처럼고객만족우수물건대량확보)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날자	감정가	최저가
동구	산수동	호남대선임구	291/123		1억1천	5천2백
	지산동	푸른애선인근	136/89		6천6백	3천6백
	지산동	진하하이빌인근	165/172		1억3천	7천3백
	동명동	중앙도서관인근	344/169	1	2억8천	1억6천
	동명동	농장다리인근	182/99		8천5백	4천7백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날자	감정가	최저가
서구	양동	실내체육관인근	254/68		1억	3천7백
	쌍촌동	현대아파트인근	188/155		1억2천5백	7천
	쌍촌동	호광중인근	239/262		1억7천	1억2천
	농성동	홀고개인근	270/217		2억	1억1천
	내방동	쟁동부근	155/146		8천6백	6천
	농성동	서구청인근	363/259		1억8천	1억
	농성동	진흥원인근	139/144		1억4백	7천2백
남구	월산동	월산라인@인근	228/150		1억3천	8천8백
	주월동	스카이젝션인근	162/174		1억3천	7천3백
	주월동	정산초부근	153/160		1억8천3백	6천3백
북구	우산동	무등장례식장옆	149/96		7천5백	4천2백
	운암동	대지초인근	131/144		9천8백	6천8백
	우산동	우산초부근	189/93		9천8백	4천3백
	중흥동	효동초인근	150/141		9천4백	5천2백
	두암동	두암주공2단지	131/136		9천백	4천백
광산구	신촌동	송정초인근	198/156		4천7백	3천8백
	소촌동	송정중앙초	191/62		8천8백	6천2백
	신창동	보건대인근	1106/362		2억	1억4천

아파트 (고객맞춤형최고의전문가직접상담)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날자	(㎡)	감정가	최저가
동구	지산동	삼성아파트	9/3	85/53	9천4백	6천1백
	학동	세라믹	8/11	148	1억8천	1억1천
서구	풍암동	부영2차	8/29	80/42	1억2천5백	8천5백
	치평동	혜광한신	9/18	18/80(24평)	8천2백	5천7백
	금호동	주은	9/13	42/85(32평)	1억4천8백	1억3백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2차	9/22	52/141(42평)	2억2천	1억5천백
	봉선동	삼익	8/14	131/65	1억8천5백	1억2천9백
	진월동	한신2차	8/27	59/24	8천	5천6백
북구	운암동	미라보	9/3	84/35	9천	6천3백
	문흥동	대주	9/3	42/85(41평)	8천5백	5천8백
광산구	월계동	우미3차	8/12	72	6천5백	4천8백
	월계동	대주	8/14	105	9천2백	6천4백
	월계동	첨단선경	8/27	92/52	1억1천	7천7백

나주 장성 담양 화순 등 전원주택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평방)	감정가	최저가
나주	문평면	486/143	7천4백	4천1백
	다시면	161/213	7천4백	5천1백
	삼포면	453/152	8천5백	4천5백
	다시면	534213	7천3백	4천1백
	보산동	1623/145	7천9백	4천4백
	금천면	628/119	5천7백	4천
	문평면	650/165	5천4백	3천8백
장성	삼서면	502/242	5천9백	3천3백
	남면	370/129	9천9백	7천9백
	삼서면	995/192	5천8백	4천5백
담양	고서면	340/124	8천1백	5천6백
	대전면	258/123	4천9백	3천3백
	담양읍	396/169	1억7천	9천6백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날자	감정가	최저가
담양	담양읍	258/70			5천8백	3천1백
	담양읍	628/137			3천9백	1천7백
	대전면	340/122			5천3백	3천7백

숙박시설 (전문가직접상담)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동구	학동	병무청인근	363/858	8억2천	5억7천
서구	광천동	써밀병원인근	175/877	5억8천	2억
남구	월산동	산우산림인근	389/976	8억9천	6억9천
	백운동	백운교차로	145/661	6억5천	2억2천
북구	중흥동	문병원인근	215/181	3억4천1백	1억9천1백
	누문동	광주일고부근	444/1324	14억5천	8억1천
	신안동	신안사거리	351/1406	12억8천3백	5억7천
	운암동	운암동주공인근	3430/10928	1백11억8천	
광산구	쌍암동	우편집중국인근	803/2577	28억8천	12억6천5백
나주	나평읍	드들강인근	2751/20714	15억4천	8억6천
화순	도곡면	도곡은천내	2042/2795	19억4천	8억7천

토지(대지) (투자가바로돈이다)

지역	소재지	지목	토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남구	행암동	농지	7229	3억4천	2억4천
북구	지아동	농지	204	2천백	1천5백
동구	지산동	임야	1755	9천6백	2천2백
광산구	신창동	농지	2073	5억	2억8천

답/과수원/임야/주유소/선박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평방)	감정가	최저가
담양	고서면		2010	2천	1천3백
	담양읍	(전)	1676	1천8백	9백
	담양읍	광지지역	3002	1억4천	9천8백
화순	춘양면		1181	1천	7백
	화순읍		604	2억	1억1천
나주	금천면		1666	1억4백	7천
	다도면	나주호관광지	2884	1천7백	신건
	남평읍		3002	7천8백	5천4백
	금천면		1666	1억5백	7천3백
장성	단광리		122483	1억5천7백	7천
	삼계면		48793	4천	2천7백

공 장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평방)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내	1712/1343	9억3천	4억2천
	옥동	평동공단내	6611/4742	34억	22억
	지죽동		1588/1588	9억3천3백	3억2천
나주	세지면	면소재지부근	12191/11632	100억	18억
	산포면	면소재지부근	4483/1431	17억	7억8천
	삼포면	삼포초교	2223/3830	17억4천	7억8천
장성	삼계면	문전하원부근	4298/1481	6억6천	3억7천
화순	동면	동면농공단지	19895/4105	16억7천	7억5천
담양	월산면	월산초교인근	5070/803	3억5천	2억
	수북면	구면마을	883/871	4억2천	2억3천

• 사원모집 • 공인중개사 환영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_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_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 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_ 이장을 해 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_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 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_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